

일본산 스테인레스 후판 반덤핑 조사

무역위원회, DKC 조사신청 ... 국도화학 최대주주의 자회사 포함 3사

석유화학, 선박, 담수화 설비 등에 쓰이는 일본산 스테인레스 후판이 반덤핑 조사를 받는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4월29일 발표했다.

무역위는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 DKC가 신청한 반덤핑 조사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앞으로 3개월간 예비조사를 벌인 후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여부를 예비판정하고 3개월간 본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대상으로 지목된 일본 철강기업은 국도화학의 최대주주인 Nippon Steel Chemical(신일본제철)의 지분이 80%인 NSSC와 야킨코교, JFE 등 3사로 알려졌다.

DKC 관계자는 “일본제품이 덤핑 수입돼 생산량과 판매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석유화학 및 선박, 담수화 설비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철강재로 2009년 국내 시장규모는 3200억원에 달했으며, 일본제품의 점유율은 23% 정도를 나타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29>